

K-기업, 원가절감·현지생산 등 대응... 피해 최소화 '방점'

트럼프, 관세 서한 발송

식품업계, 원가 경쟁력 강화
화장품업계, 생산시설 구축 검토
제약업계, 의약품 재고확보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국내 식품·화장품·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협상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업계는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무역 관련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90일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부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업계는 특히 K푸드와 K뷰티가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 수출 효과 품목인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전체 매출 1조7280억원에서 77%(1조3359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원)가 해외에서 발생했고, 그 중 28%가 미국 시장이다. 삼양식품은 "정부 협상 상황과 TF를 중심으로 지역별 원가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가' 브랜드로 글로벌 김치 시장 1위를 지켜온 대상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미국 LA, 오리건에 3곳의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현지 업체 '럭키푸드'를 인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출 비중은 현지 생산의 두 배 수준

으로 국내 생산분에 대한 관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고품질·저가격 전략에 급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뷰티 브랜드 기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북미법인 원가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 프로모션 조정, 포장 단위 변경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 "미국 생산시설 구축은 장기 과제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는 지난달부터 펜실베이니아 2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선제 대응했다. 코스맥스도 미국법인 코스맥스USA를 통해 뉴저지에서 생산을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에 달하는 고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년에서 1년 반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셀트리온은 최종적으로 미국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삼고, 단계별 전략을 시행한다. 미국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고 확보'에 가장 먼저 대비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2년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2년분의 재고는 상시 보유하고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미국 판매용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과 계약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SK바이오팜도 미국 생산을 추진해 왔다.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현재 국내에서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캐나다에서

벌크 태블릿 및 패키징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외에 미국 생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언급했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라는 점을 짚었고, 이는 미국으로 생산 거점 이전(리쇼어링) 등에 중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합하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차바이오텍 등은 미국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쿠스에 위치한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의 공장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22년 텍사스에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시설을 준공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시설에 의약품 생산을 위탁하려 해도 기술이전부터 규제 기관 실사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직접 생산 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200% 관세율 실제 반영될지 관세율, 관세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신선 기자 tree6834@metrosooul.co.kr

>> 1면 '현지생산·MRO까지'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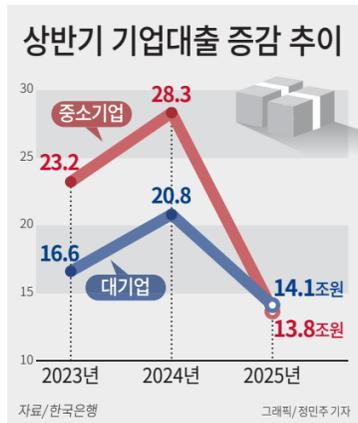
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28조... 중소기업 공급액 '반토막'

방산업계, 수주 순항 "정부와 협력해 성장"

리스크 적은 대기업 중심 확대 일각선 중소기업 부실 증가 우려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의 부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 은행권의 대기업의 대출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1~6월) 기업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39조8000억원)와 2024년 상반기(49조1000억원)과 비교



하면 각각 29.9% 43.2% 감소한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공급액은 총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인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한 13조원을 공급하고,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3조원이 줄어든 8000억원을 공급했다.

대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1000억원으로 3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보다 50% 수준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말 기준 0.83%로 1년전(0.66%)와 비교해 0.17%포인트(p) 상승했다. 중소기업인은 0.89%로 같은 기간 0.19%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는 0.74%로 0.13%

p 올랐다.

대기업이 0.13%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 그 자리를 대기업 대출로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대기업 대출 쏠림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달 6·27대출규제와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공급은 더 제한되고, 내수회복이 더디지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부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기업대출로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만큼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 청약 급증

오티에르 포레, 평균 경쟁률 688대 1

서울이지만 6·27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 단지에 수만명이 넘게 몰리며 청약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9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의 1

순위 청약에는 40세대 모집에 2만7525명이 접수했다.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가 성수동1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287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단지다. 이 가운데 88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었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688.13대 1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타입이 2세대 모집에 3314명이 몰려 경쟁률이 1657대 1까지 치솟았다. 앞서 특별공급 청약에도 48가구 모집에 1만1181명이 신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시행일인 28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중전규정이 적용된다.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규제 시행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청약홈에 따르면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1.35대 1로 집계됐다. 83가구를 모집에 1만5882명이 접수했다. 전용면적별로는 59㎡가 10세대 모집에 5827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이 582.7대 1을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이에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기본 옵션화해 유럽과 인도·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기술이전·유지보수(MRO)까지 포함된 전략적 패키지 수출 구조로 협약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방산 강국을 되친 만큼 정부와 협력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